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24)

-일제 동굴진지 학술조사와 과제  
거대 지하호·특공기지 등 실체규명 촉각

입력 : 2008. 11.27. 00:00:00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해군 특공기지로 구축된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송악산 일대는 유력한 미군 상륙예상지점 도, 구축배경·규모·실태 등 종합조사 착수

제주도가 무관심속에 방치돼온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시설 가운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곳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학술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조사는 지난 상반기 제주시권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구축과정과 배경 등 역사성 규명과 규모 및 현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학술조사 대상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일대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13호)와 셋알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10호),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17호) 및 성산읍 일출봉 해안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11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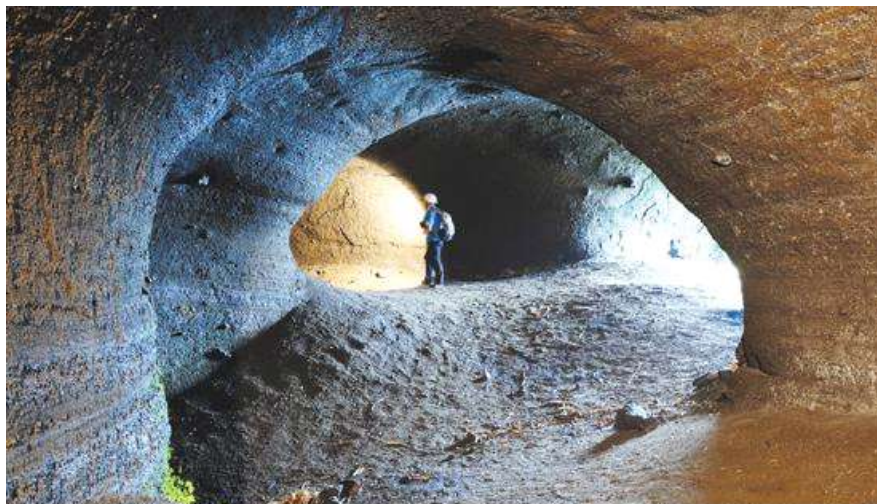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어떤 곳=송악산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대략 알려진 길이만도 1km 이상 되는 거대 지하호다. 송악산 북쪽에 솟아있는 알오름 3곳 중 가운데에 위치한 이 동굴진지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시설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굴진지 내부는 마치 미로형처럼 뻗어있어 구조와 규모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구간은 농산물저장고 등으로 이

용되는가 하면, 천장부가 무너지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는 해안가 전진거점진지로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이다. 송악산 1차 분화구 바깥 능선 지하를 따라 길게 구축돼 있다. 길이는 7백~8백여m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 또한 출입구만도 20여 곳 정도로 해안가 전진거점진지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갭도 내부가 스킨리아(scoria)층으로 돼 있어 지반이 연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동굴진지 진입부와 연결통로 등이 무너지는 등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는 송악산 해안 조간대를 따라 모두 15곳 정도 구축돼 있다. 이곳은 일본 해군 특공기지 가운데 회천(回天)대 기지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출봉 해안 동굴진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봉 해안을 따라 모두 18곳 정도 만들어져 있다. 이곳은 일본 해군 진양(震洋)대 기지로 실제 특공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 또한 구축과정과 규모 실태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산일출봉 해안에 구축된 일제 동굴진지 내부(사진 위)와 모슬포 송악산 셋알오름에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진지 모습.

▶**무엇을 조사하나**=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해안 일대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 등 연합군의 유력한 상륙예상지점으로 꼽힌 곳이다. 이를 보여주듯 송악산 일대는 알뜨르비행장과 관련 시설 및 거대한 지하호, 해안 자살특공기지, 고사포진지 등이 밀집돼 있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등에 대한 학술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악산 해안과 외륜 및 셋알오름 지하호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주둔과 군사시설 구축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일본군 군사시설의 구축배경과 과정 등에 대한 학술규명에 나서게 된다. 일본군이 제주에 진주한 시기와 과정 및 주둔 부대와 병력배치 상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또한 내부 구조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현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공사현장에 강제 노무동원 됐던 생존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채록 등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동굴진지에 대한 기본설명문을 넣은 안내문을 설치하는 사업도 전개된다.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정비 보존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역사체험 교육현장이자 문화관광자원으로써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학술조사를 토대로 한 두 곳을 대상으로 한 정비 보존 활용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후에 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에는 일본군 7만5천여 명이 주둔하면서 제주도민 및 다른 지방 사람들을 강제 동원 일본 본토결전에 대비한 비행장과 격납고, 지하 진지 등 많은 군사시설을 구축했으며, 이 가운데 13곳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 미니 박스 ] 제주전역 전수·실태조사 나서야

제주도에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동굴진지 이외에도 해안과 오름 등지에 수백여 개의 일본군 군사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와 구축실태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면서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학계에서는 '결7호작전' 지역으로서 일본군 주둔배경과 구축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조사 이외에 먼저 도 전역에 대한 전수 및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어 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대상을 확대시키고, 정비 및 보존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제에 제주 일본군 군사시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제워크숍에서도 도내외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해 "일본 본토보다도 제주도가 오히려 다양한 시설이 대규모로 잘 보존돼 있는 등 세계적인 전쟁문화유적의 현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존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은 "이제라도 등록문화재 동굴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더 늦기 전에 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존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